

## “기적같은 미국이민” [후편]

지난 8 월호에 게재된 '기적과도 같은 미국이민' 후편을 게재합니다.

-----♡☆☆♡☆☆♡-----

그런데...

맥도널드에 들어간 두분은 햄버거를 주문한 후에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백인들이 신부냐고 물어왔다. 왜냐하면 신부들이 주로 입는 White Color 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민와서 살고 계시던 윤경원목사님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장로교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흥미로운 듯이 다시 물었다고 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 저희들은 캐나다 토론토로 갑니다!”

그리고 윤목사님은 그 백인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와 자신을 소개했다.

“이분은 한국 서울에서 오신 최창덕목사님이시고, 나는 미국에 뉴욕주에서 살고 있는 윤경원 목사입니다!” 옆에 조용히 앉아 있던 백인 일행 중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왔다.

“한국에서 살다와서 미국을 보니 미국의 인상이 어떠합니까?”

영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윤목사님의 통역으로 대답 할수 있었다.

“참 좋은 나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아버지께 물었다.

“당신도 윤목사처럼 미국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에 “그럴수 있다면 참 좋겠다!” 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이미 미국에 오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었는가? 음식을 다 먹고 일어서는데 아버지에게 질문을 건넨 사람이 작은 쪽지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기록을 하더니 아버지에게 건네주고 갔다. 아버지는 영어로 적혀있는 그 쪽지를 받아서는 무심코 왼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캐나다에 도착한 아버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후 토론토 영락교회의 김재광목사님을 만나셨고 그리고는 미국여행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 오셨다.

한국에 돌아온 아버지는 미국 맥도날드 체인점에서 받은 쪽지를 까막득히 잊어 버리셨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빨래를 하시다가 그 쪽지를 주머니에서 발견하셨다. 그리고 그쪽지를 아버지께 건네 주셨다.

그때야 그쪽지를 자세히 본 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심코 주머니에 넣어둔 쪽지 뒷면에는 미국에 와서 살고 싶으면 이대로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세히 쪽지 앞면을 보니 그것은 단순한 쪽지가 아니라 명암이었다. 그 명암의 주인은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 이민국 고위 직원이었다.

아버지는 쪽지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8 가지 서류들을 작성해서 미국 디트로이트 이민국 앞으로 보냈다. 그 8 가지 서류는, 목사 증명서(교단), 신학교 성적 증명서, 시무하는 교회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등등이었다. 아버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믿고 적혀 있는대로 해서 보냈다고 한다.

서류를 보낸지 약 3 개월만에 미국 디트로이트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다. 그 편지를 뜯어 보니 바로 독수리 마크가 찍힌 미합중국 이민 초청장(Petition)이었다.

그 초청장의 제목은 ‘종교 교육목사(Education pastor of Religion)’ 이었다. 이 케이스는 당시에 이민법 초청 3 순위에 해당 되는 종교 특기자 초청 케이스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Social Security Number 는 3 으로 시작된다.

미국 이민자 중에 SSN # 가 3 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나의 아내도 내 자녀도 모두 5

아니면 6 으로 시작한다. 그날밤 아버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해 주셨다.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된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 해서 미국가게 된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나는 그날밤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만 왔던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 오면서 내가 직감했던 그 무엇이란 바로 이민이었다. 교회가 썰렁했던 이유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된 목사님과 그의 헤어짐을 교인들이 섭섭해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같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목사님을 부러워 했다.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수다쟁이 권사님들도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1977 년 12 월 12 일은 우리가 묵동 '화랑마을' 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날이었다. 그날 소복이 눈이 왔다. 그런데 나는 그날 참으로 놀랐다.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는 날 동대문구 묵동의 작은 화랑마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던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던지 모두 나와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아버지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다.

아버지는 그런 덕장이셨다. 미국으로 이민을 갈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 55 세 였다. 대단한 결심이 아닌가?

"오~ 주님!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는 아버지를 또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간절히 미국으로 올 기회를 달라고 기도 했던 것처럼... 나도 두손 모아 간절히 미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신 뜻이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막내가 대학 졸업 1 년을 앞둔 이번 여름에 LA 에 잠시 방문 했을때 모든 가족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아빠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겠

다고 선언 한거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때 그러니까 둘째 '나다니엘' 이가 중학생 시절에 아버지께서 말씀 하시기를...

"저 놈이 대를이어 대성 할 놈이야...!" 하셨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것을 그때 보실수 있었을까? 나는 아버지가 참 부럽다.

아버지가 55 세에 먼 태평양을 건너와 LA 에서 고달픈 이민 교회 목회를 시작하셨고 LA 새한 교회와 해외(미주)한인장로회 설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 그리고 90 세를 사시고 돌아 가시기전 교단이 정치와 돈으로 부패했다고 안타까워하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명예를 위해 목회 하지말고 복음을 위해 성실하고 진실한 목회자가 되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이제 나도 아버지와 같은 55 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LA 근교 벨리지역 남단의 셔만옥스에서 교회를 새로 시작했다.

나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아~~멘~!

(최사무엘목사 칼럼)

<칼럼의 저작권 Copyright 은 셔만옥스 한인교회 무단 복제와 배부를 금합니다>